

스트럭처 피싱

빅배스를 만나기 위한

Steep-Sided Points
가파른 면

곶부리 지형 분석

Outside Edge Of Vegetation

The First Breakline off a Flat
평지를 벗어나서 맨 먼저 나타나는 브레이크라인

험프 지형 분석

Isolated Ridges or Humps
독립되어 있는 산등성이나 험프

채널 지형 분석

Submerged Roadbeds
수몰된 알자리 길목

브레이크라인 지형 분석

Channel Breakline
채널의 곶부리

BK 2009년 5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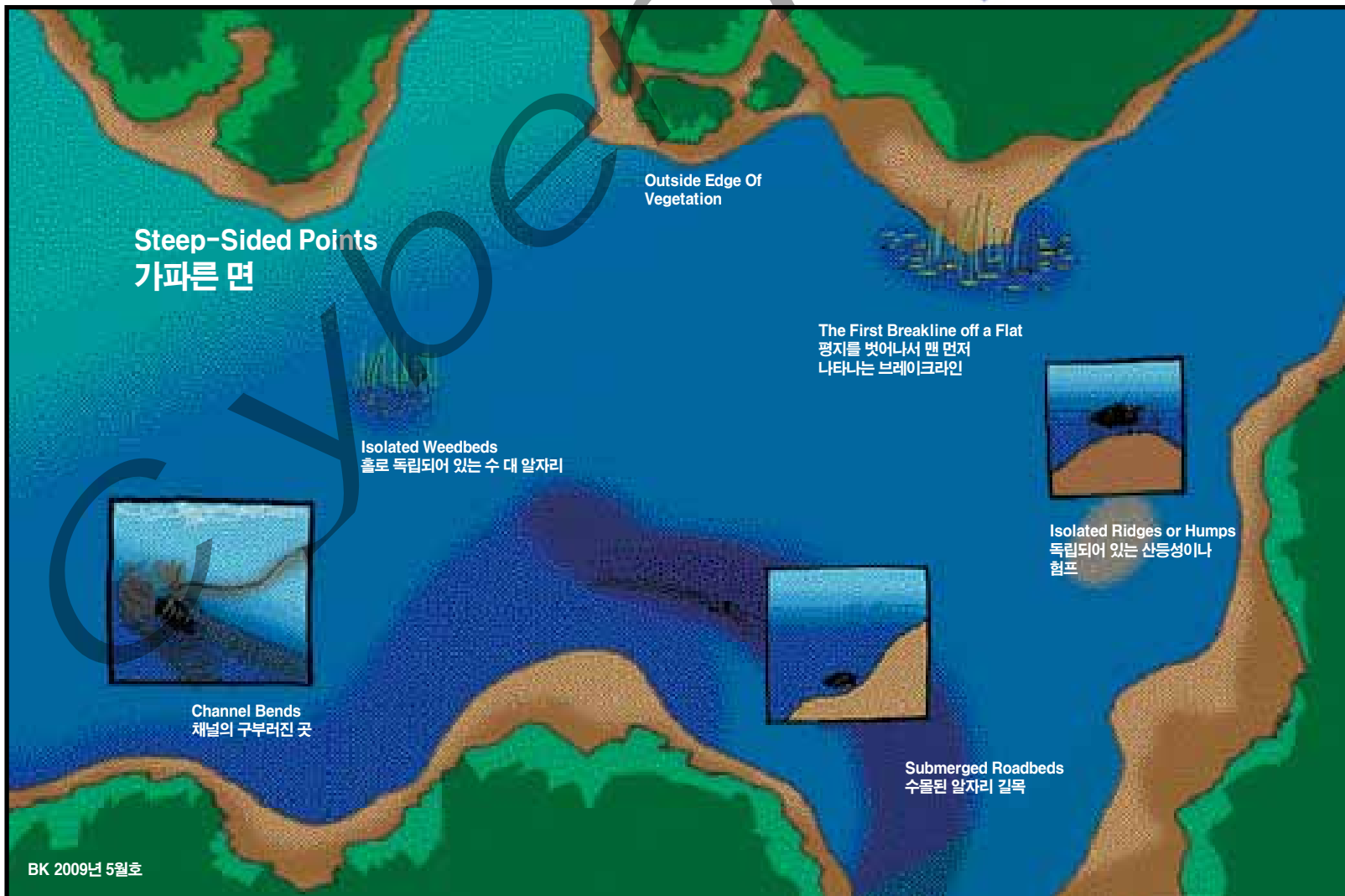
스트럭처 피싱

빅배스를 만나기 위한 곶부리 지형 분석

글 | 원동성 배스낚시 전문가

배스낚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배스낚시 연구가. GPS 등 첨단장비와 오랜 시간 배스낚시를 통해 습득한 경험을 녹여 국내 최초로 물 속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도출해내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사육' 이란 아이디로 유명하다.

자료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이번 호에는 물속의 스트럭처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봄철 빅배스를 노릴 때 필요한 주요 공략 지역 선정에 대해 사례 를 들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우선 BK(BassmasterKorea, 2009년 5월호, 16~17)의 내용을 참고로 하고자 한다. 여기에 실린 내용을 보면 빅배스들의 습성에 대해 아주 중요한 설명이 되어 있다.

“비록 빅배스의 섭식과 산란은 쉘로우와 관련이 있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머무는 시간은 극히 최소한이고, 흔히 어두운 커버에서 머물거나 깊은 물을 벗어나는 경우는 드물다.”

위의 글은 짧지만 빅배스들의 생리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습성에 어울릴 만한 자리를 찾으면 될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그런 자리로 7곳을 추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첫 번째로 곳부리 지형을 다뤄보기로 한다.

1. Steep-Sided Points

우리가 가장 먼저 선호하는 곳부리 지역이다. 이 지형이 갖는 특성은 무엇보다



사진 1



사진 2

매복자인 배스들의 생리에 아주 적합하다는 것이다. 주변을 회유하는 베이트피시들을 기다렸다가 급습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이고, 딥에서 쉘로우로 이동하는 자연스런 경로를 구성한다. 그러나 이런 지형도 시기와 주변 여건에 따라서 조과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아래 그림은 국내 필드 중 아주 멋진 수중 곳부리의 사진이다. 물속을 모르면 뛰어난 상상력의 소유자라도 정확한 위치를 선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자리를 정확하게 공략하기 위해서는 역시 첨단 장비의 도움을 받는 게 무엇보다 쉬울 것이다. 사진 1, 2는 대청댐에 있는 장소, 아래 사진은 나주댐에 있는 곳으로 이곳에 대해서 곳부리의 여러 특징을 탐사 결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국토지리정보원 발간의 수물 전 지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그림 중 B지역이 곳부리 지형이다. 주변에 로드 베드도 지나가고, A지역의 채널 밴드와 커다란 수물 마을들과 서로 연계되어 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메인 채널의 흐름과는 상당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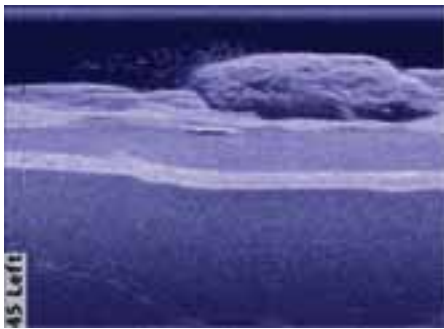
*주) 위의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 발간 구 지도를 구입하여 작성한 것으로 잡지 기고에 사용하도록 개별 허가를 받은 것임을 밝힙니다. 무단전제나 복사를 금합니다.



스트럭처 structure 호수나 물의 밀바다 지형의 변화와 경관색 또는 경간 나무 등 바다 지형지물의 형태나 그 밖의 물속에서 형태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 쉘로우 shallow 수심이 얇은 곳. 샌드바리 sandbar 물고기가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물속의 장소.

거리를 두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이 장소는 때에 따라서 극심한 조향 변화를 연출하는데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추측된다.

나주댐을 처음 방문 했을 때 자료를 보고 이 자리에 제일 먼저 갔었고, 그 당시 조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어느 정도 배스들이 몰려 있었는지 아래의 사이드 영상을 참고해보면 알 수 있다. 날짜는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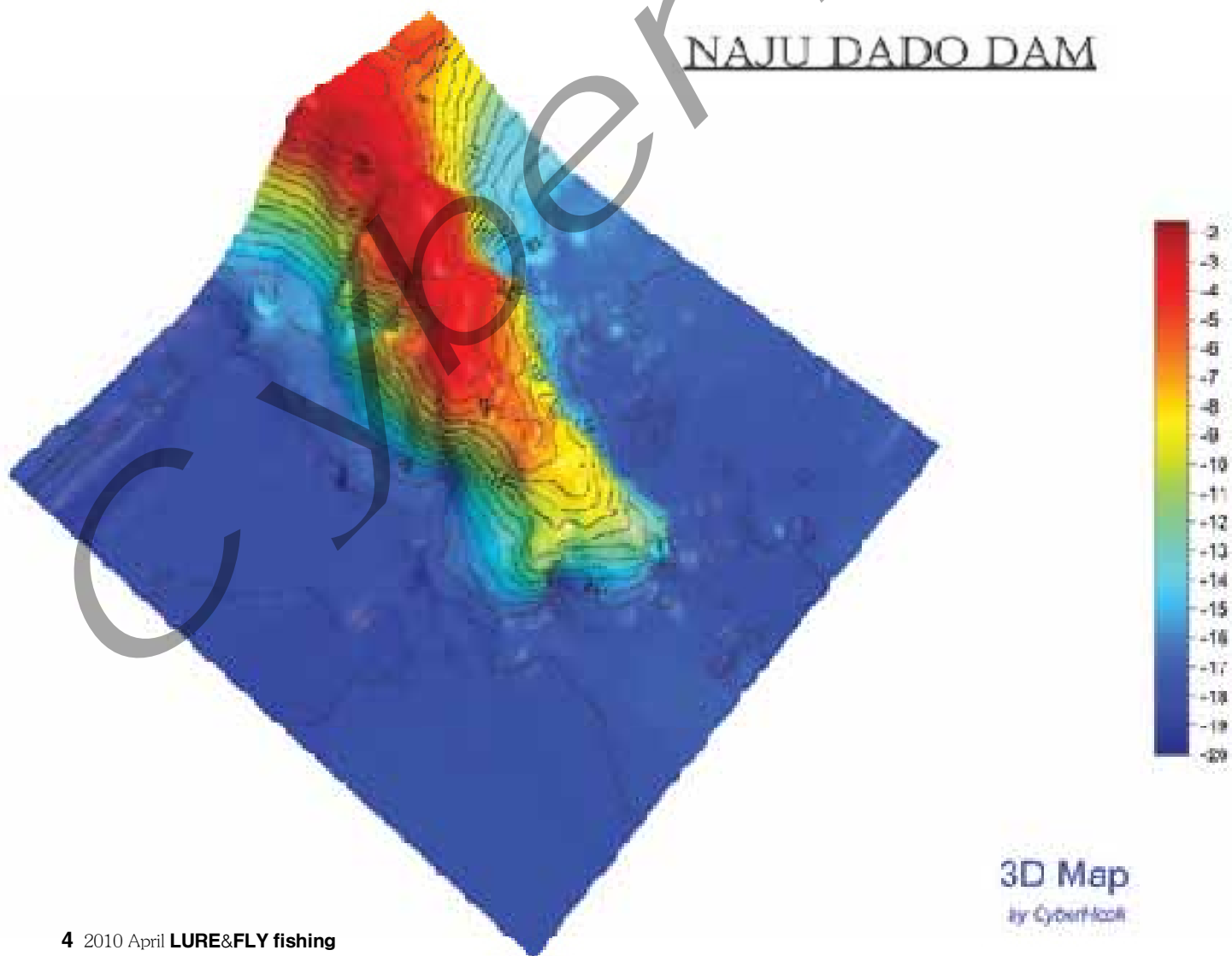
년 12월 26일이다. 대부분의 배스들은 곳부리 끝이 아니고 옆면의 한 곳에 집중해 있었다. 후일 탐사 결과를 참고로 어탐에 찍힌 장소와 비교해 보고서야 이유를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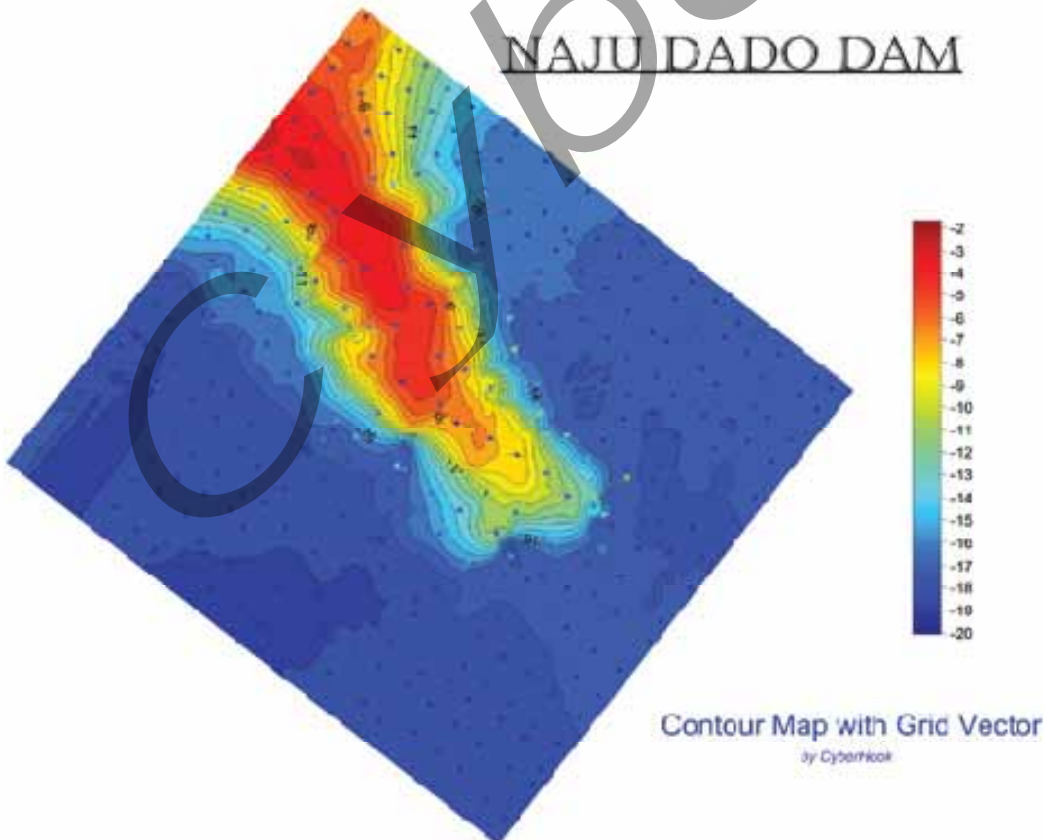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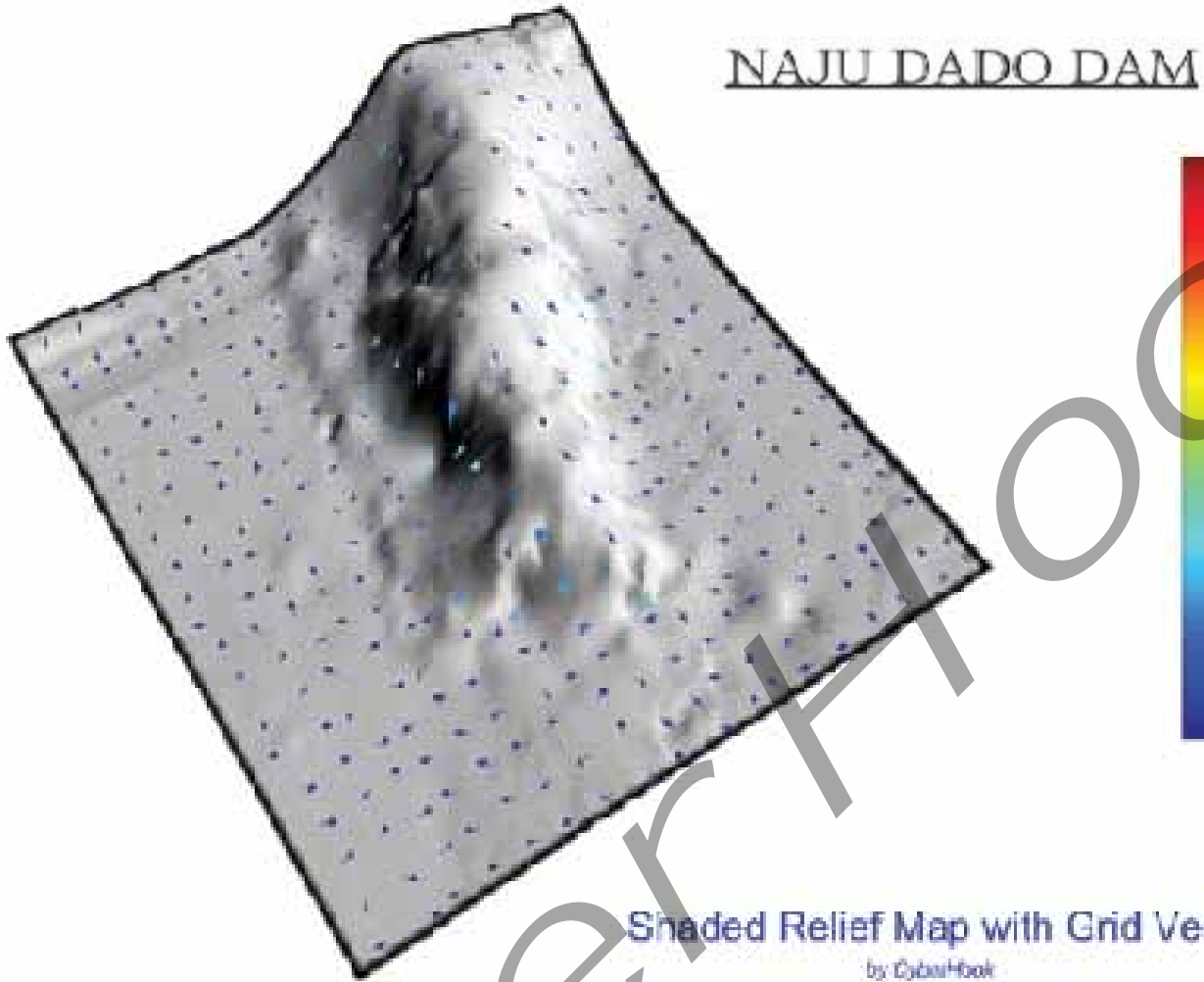
아래 그림은 탐사 지역을 3차원 모델로 작성한 것이다. 아래의 3차원 모델은 대략적인 지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필자는 통상적으로 좋은 포인트 분석에는 다른 자료를 하나 더 만들어본다. 만약 커다란 주전자가 있어서 위에서 물을 부으면 어떻게 흘러내릴 것인가? 그리고 어느 방향, 어떤 속도로 흘러내릴 것인가를 알아볼 수가 있다.

다음장에서 보는 그림은 'Shaded Relief' 라는 것으로 그냥 회색으로 굴곡만을 표현한

것이다. 대부분 평면지도나 사진을 입체적으로 합성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입체를 구성하는 표면의 격자점에서 기울기의 크기를 벡터로 표시하고, 값의 크기에 따라 화살표의 크기와 색상, 방향을 대입한 것이다. 대략 이 도표를 보면 어느 곳이 상대적으로 변화가 많은지 면이 솟아 들어 갔는지(Indentation)를 쉽게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으며 어탐 사진에서 배스들이 집중적으로 스쿨링 되었던 곳도 이곳이었다.

이제 본격적인 스트럭처 피싱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좌표를 알고 접근해야 하는데, 아래의 평면 등고선에서 추출을 한다. 어탐에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수록이 된다. 우리나라의 대형 필드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멋진 곳부리 지형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런 지형들을 세심하게 하나씩 정복해 나갈 때 진정한 멋진 배스 앵글러가 되리라 확신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위의 그림처럼 그렇게 많이 몰려 있던 배스들이 약 한 달 뒤에 방문했을 때는 한 마리도 안 보였다. 겨우내 스쿨링해 있으리라 예상했던 필자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격이었지만, 그 덕분에 또 다른 좋은 경험을 했다. 즉, 아주 깊은 겨울은 곧 다가올 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겨울도 짧지만 봄이 일찍 오는 니주에서는 배스들이 일찍 산란터로 진출할 부근의 생추어리로 재빨리 이동한다는 걸 새삼 발견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배스낚시 메카인 안동호에도 한 번도 물 밖으로 들어난 적이 없는 엄청나게 좋은 스트럭처들이 물속에 많이 숨겨져 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다뤄볼 생각이야.

■ 이번 호에는 대부분의 배스 앵글러들이 즐겨서 공략하는 곳부리 지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 호에는 곳부리 못지 게 아주 중요한 채널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카버 cover 강, 호수 등의 바다에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영항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해, 인공물, 채널 channel 인공호수를 만들기 전에 강 또는 수로가 흘렀던 자리(물길), 생추어리 sanctuary 물고기가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물속의 장소, 스쿨링 schooling 고기들의 집단행동.



스트럭처 피싱

빅배스를 만나기 위한 험프 지형 분석



이번 호에는 물속 스트럭처 중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하고 많이 인용되는 ‘험프’의 특성과 생성과정, 그리고 공략법에 대해 살펴본다.

글 | 원동성 베스낚시 전문가, <http://blog.naver.com/sow2004/40104055471>
베스낚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베스낚시 연구가. GPS 등 첨단장비와 오랜 시간 베스낚시를 통해 습득한 경험을 녹여 국내 최초로 물 속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도출해내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사육’이란 아이디로 유명하다.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1. 험프의 특성

험프들은 외관상 독립적인 것이 큰 특징이다. 필드의 수위에 따라서 물속에 잠겨 있을 때나 물 밖으로 노출되었을 때나 주변의 지형과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도보낚시에서는 뻗히 보이지만 공략이 불가능한 위치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보트 낚시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험프들의 높낮이가 동일하지도 않을 뿐 더러 수위에 따라서 물속에 숨겨져 있을 때는 보트를 탔다고 하더라도 찾기가 용이한 건 아니다. 그러나 가을철 같은 경우에 수중에 잠겨서 베이트피시들의 이동 경로상에 버티고 있는 험프들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험프를 잘 찾아서 효율적으로 공략하느냐 아니냐가 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물 밖으로 들어난 험프보다는

수중에 숨겨져 있으면서 해당 시기에 적절한 수위를 유지하는 험프가 정말 좋은 험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이유로 해당 필드에 있는 험프들의 해발 높이를 정확히 알아두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험프의 생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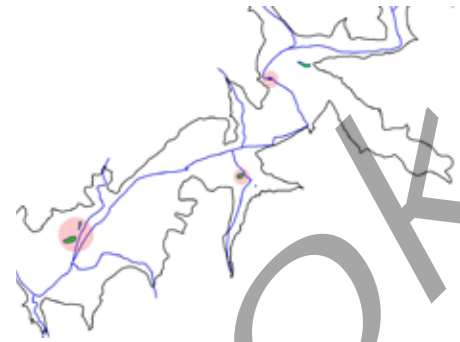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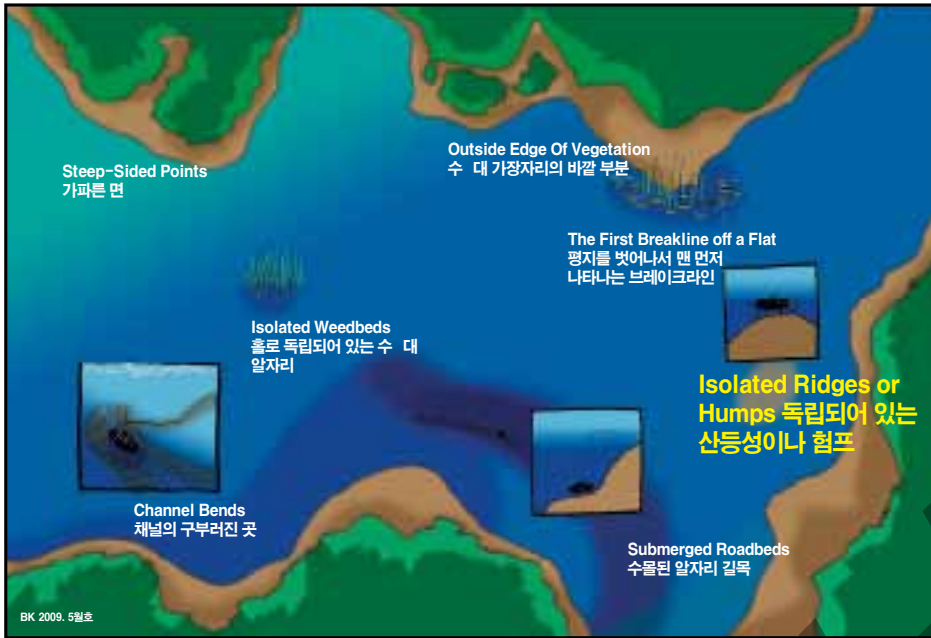
험프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 것은 국내 필드의 성격상 몇 가지 서로 다른 생성 과정이 있고, 이들 생성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이들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략 방법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첫째, 자연적인 생성이다. 오랜 세월 동안 지표면의 침식 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것을 뜻한다. 이 경우 험프는 당연히 주변 지형보다 딱딱한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된다. 이때 연안과 연결된 지형 자체도 딱딱하다면

긴 곳부리 형태가 되겠지만 안 그런 경우는 연안과 연결된 부분도 침식이 되어 덩그러니 험프만 남게 된다. 만약 물이 완전히 바닥까지 빠졌다면 이 험프는 연안과 연결되어 새들 포인트(말안장처럼 생긴)를 형성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주변 지형을 침식 시킨 채널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험프 주변에서 채널이 급격히 방향을 바꾸었다면 그 험프 주변은 상당히 복잡한 지형 특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완경사와 급경사로 이루어진 사면에는 많은 하드버텀과 바위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국내 필드에서 이런 특징을 가진 장소들을 소개해 본다.

안동호 방장섬

다음 사진은 유명한 안동댐의 방장섬이다. 만수위 때는 완전히 잠겨서 보이지 않게 된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사진 오른쪽의 메인 채널에 좌측의 서로 다른 채널이



험프들은 서로 비슷한 발생 과정을 갖고 있고 주변 지형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필드의 많은 험프들 중에서 위에서 예를 든 자연 발생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인공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 주로 작은 규모의 저수지에서 골재 채취나 수량 확보를 위한 퇴적물 제거를 위해서 저수지 바닥을 파헤치다 보면 군데군데에 잔존물이 남게 되는데 이것이 험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런 인공적인 험프들은 대부분 자갈과 같은 골재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갈수기에는 육초 까지 자라기 때문에 아주 좋은 피딩 에어리어를 형성하게 된다.

장성호 험프

다음 사진은 골재 채취로 발생한 장성호의 험프로 위에서 설명한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합류하는 지점이라는 것이다.

다음 사진은 위의 지역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을 때에 촬영된 것이다. 새들 포인트의 특징이 여실히 들어나 있다. 주변 지형들이 물의 흐름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아주 세밀하게 침식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다.



대청댐 하류 회남대교

다음 사진은 대청댐 하류에 있는 여러 험프 군락 중 일부가 새들 포인트 형상으로 들어나 있다.

다음 그림은 대청댐 회남대교 부근의 험프들과 주변 채널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대청댐 하류에는 갈수기 본류대에 수많은 험프들이 드러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들 험프들은 주변 지형과 새들 포인트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채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유는 다름 아닌 험프들의 생성 과정과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로 대형 다목적 댐에서 많이 목격되는 이런



스트러처 structure 호소나 물의 밑바닥 지형의 변화와 생각세 또는 수심의 변화를 말하며, 물밑에 가라 은섬, 자갈, 켈브, 바위틈새, 물속의 물결, 물에 잠긴 나무 등 바닷 지형지물의 형태나 그 밖의 물속에서 형태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 험프 hump 물속에 울퉁퉁 솟은 곳. 곳, 곳, 턱이 지거나 볼록 솟아오른 수중 지형의 변화. 배이트피시 baitfish 어식성 어종의 먹이가 되는 작은 물고기. 배스는 작은 물고기는 물론 잠자리, 메뚜기, 개구리 심지어 쥐와 뱀까지 잡아먹는다. 특히 좋아하는 먹이는 장거미와 같은 새우류이다. 하드버텀 hard bottom 저갈밭 혹은 바위지역. 채널 channel 인공호수를 만들기 전에 강 또는 수로가 흘렀던 자리(물결), 브레이크 라인 break line 수심과 같은 수심이 만나는 경계선. 성질이 다른 장애물 또는 바닷 구조물이 만나는 지점.

그리고 인공적으로 생성되는 험프들의 형상은 수위에 따라서 그 형상이 매우 복잡하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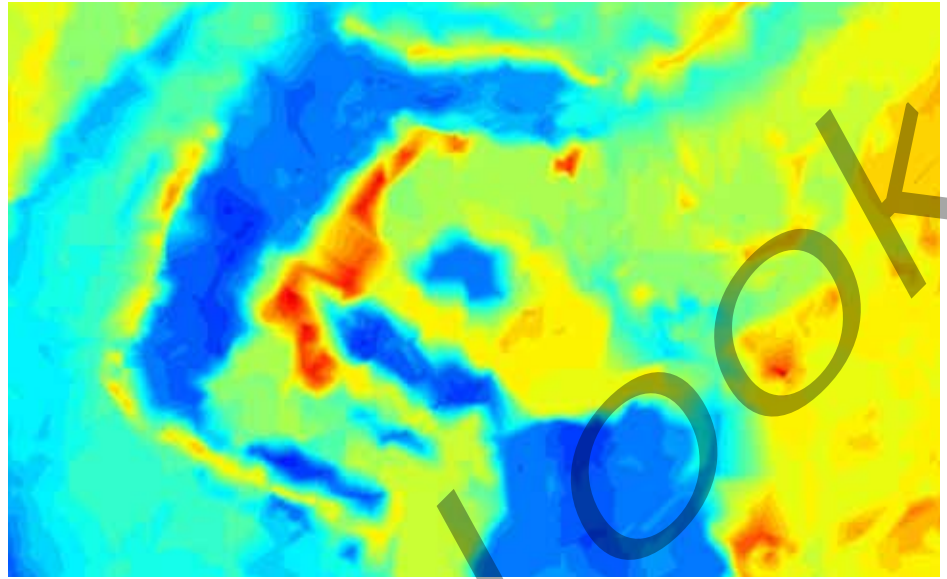


하다. 물에 살짝 들어난 모습은 단순하지만 수면 아래 숨겨져 있는 모습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한 경우가 있다.

오른쪽 위의 사진은 장성호의 상류 한가운데 있는 메인 험프로 이와 같은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웅인 신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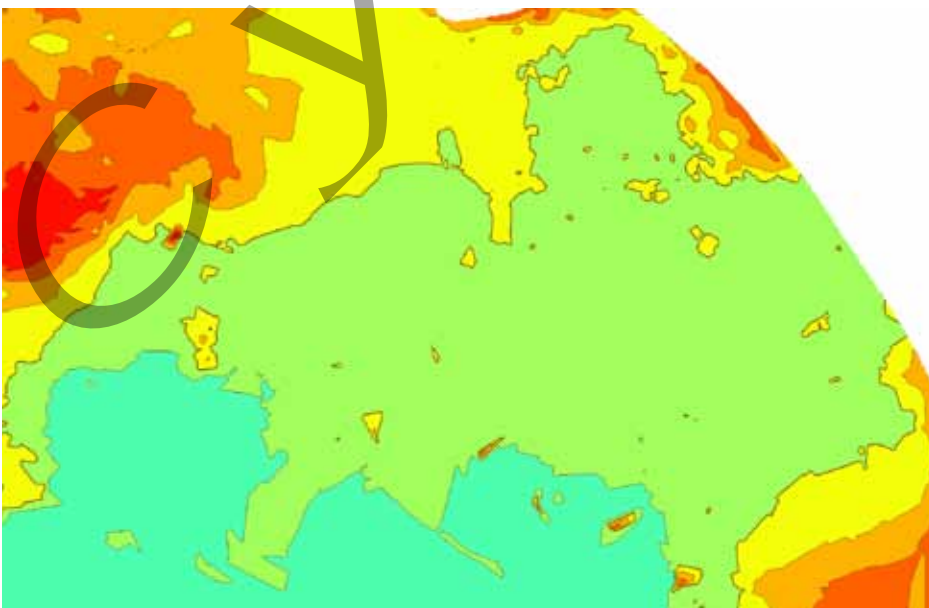
아래의 사진은 수도권 대표적인 필드인 신갈지의 험프들이다. 인공적인 공사에 의해서 생성되는 험프들은 크기와 위치가 모두 제각각인데다가 이미 기존의 채널들은 형체를 상실해서 주변의 브레이크라인들과의 연관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3. 험프의 공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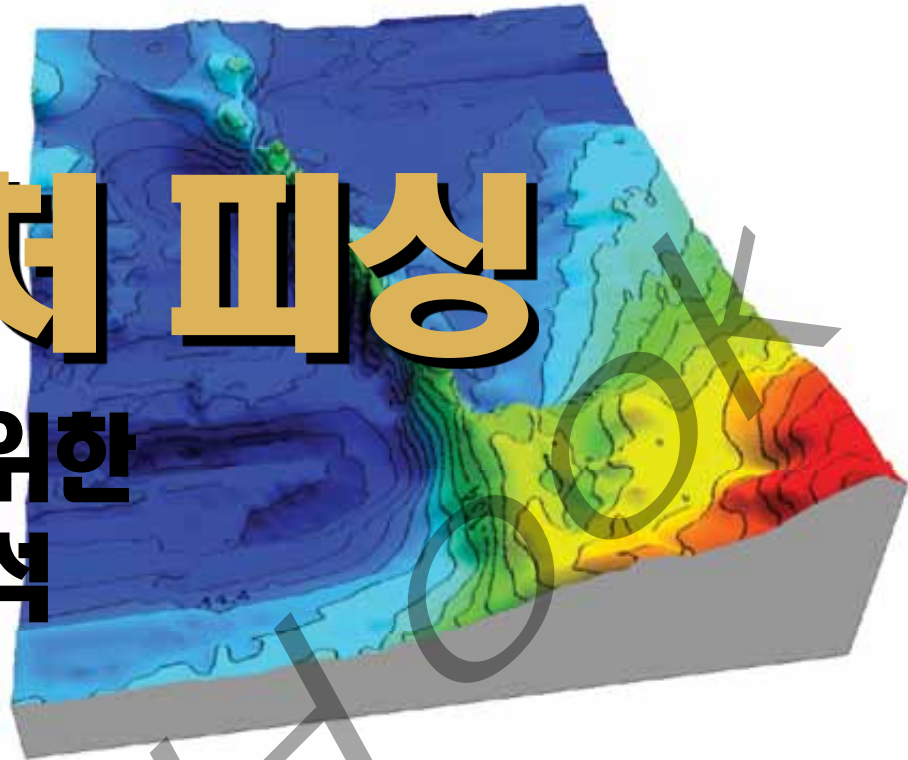
위의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험프란 스트럭처는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든 분명히 주변과 구별되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산란기와 같은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항상 주의 깊게 체크해야 하는 장소이다. 물론 특이한 경우로 감수가 심한 가운데 산란을 늦게 하는 개체들은 이미 수온이 산란하기에 충분하게 오른 상태이므로 위험한 연안보다는 오프 스트럭처인 험프 주변(특히 수중에서 산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산란을 마치고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동시에 감수가 진행되는 아주 어려운 시기, 연안에서는 잔챙이들만 입질을 해대는 경우도 이런 오프 스트럭처의 험프 주변에서는 큰 배스들을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피딩 시간대라면 빠르게 넓은 지역을 탐색하기 위한 바이브레이션을 적극 활용해보길 권한다. 만약 연안과 가깝고 상층에 육초 등이 자라서 잠긴 경우에는 스피너베이트나 탐워터 루어를 활용해서 대물들을 노려보길 권한다. 여름이 지나고 장마나 태풍으로 물이 불어서 많은 험프들이 물에 잠기는 가을이 오면 본격적인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여름을 지나면서 성장한 많은 베이트피시들이 스쿨링을 지어 이동하는 가을철에는 풍향에 따라 이들 베이트피시들이 부딪치는 수심대의 험프들을 잘 선택해야 한다. 이때 크랭킹이 먹성 좋은 가을배스를 포획할 중요한 수단이 된다. 기온 하강으로 수온도 함께 떨어지게 되면 많은 베이트피시들도 연안에서 떠나 채널을 통해 깊은 곳으로 이동해 간다. 이 시기도 채널 주변의 험프가 마지막 배스들의 겨울준비 피딩 장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필드에 따라서 배스들이 위치하는 수심이 다르므로 적절하게 딥 크랭크나 지깅스폰, 또는 지그헤드나 다운샷 등의 워치비로 험프 주변의 스트럭처를 차분하게 공략해 보기를 권한다.



스트럭처 피싱

빅배스를 만나기 위한 채널밴드 지형 분석



글 | 원동성 배스낚시 전문가, <http://blog.naver.com/sow2004/40104055471>
배스낚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배스낚시 연구가. GPS 등 첨단장비와 오랜 시간 배스낚시를 통해 습득한 경험을 녹여 국내 최초로 물 속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도출해내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사육' 이란 아이디로 유명하다.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이번 호에는 물속의 스트럭처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봄철 빅배스들을 노릴 때 필요한 주요 공략지역 선정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우선 BK(Bassmaster Korea) 2009년 5월호 16~17의 내용을 참고로 하고자 한다. 여기에 실린 내용을 보면 빅배스들의 습성에 대해 아주 중요한 설명이 되어 있다.

“비록 빅배스의 섭식과 산란은 쉘로우와 관련이 있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머무는 시간은 극히 최소한이고, 흔히 어두운 커버에서 머물거나 깊은 물을 벗어나는 경우는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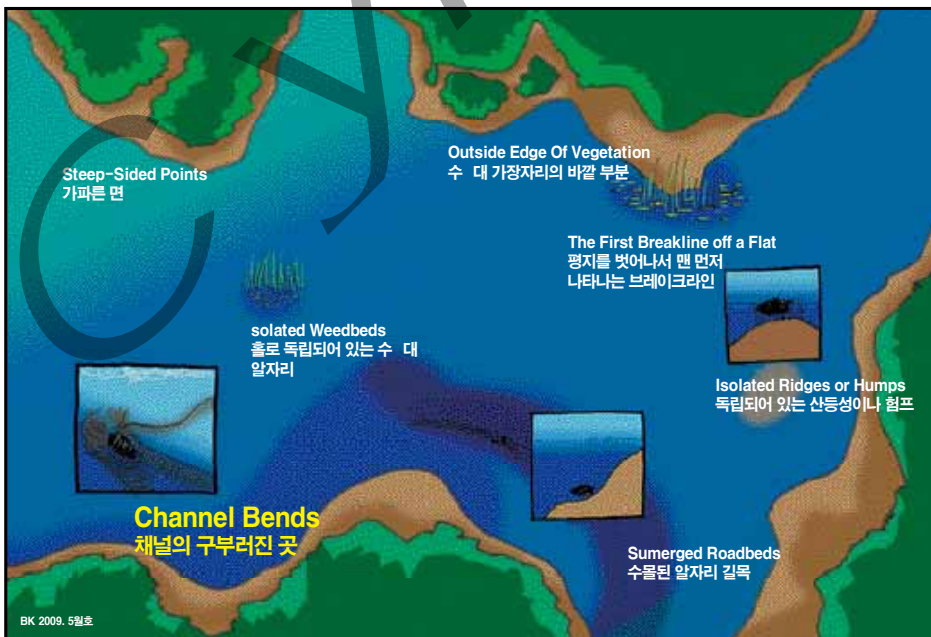
위의 글은 짧지만 빅배스들의 생리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습성에 어울릴만한 자리를 찾으면 될 것이다. 이제 이 기사에서는 그런 곳으로 7 곳을 추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두 번째로 채널 지형을 다뤄보기로 한다.

2. Channel Bends

왜 채널이 중요한가?

채널은 대부분의 어류들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실크로드이다. 실크로드는 상인들이 머나먼 사막을 건너 무역을 할 때 오아시스들을 징검다리 삼아 형성되었다. 배스를 비롯한 많은 어류들이 산란이나 먹이를 찾기 위해서 생추어리에서 쉘로우로 나갈 때 채널과 주변의 험프 등을 징검다리 삼아 이동하는 모습이 마치 실크로드를 오가는 상인을 흡사하게 닮아서 필자가 붙인 이름이다. 모두 다 알다시피 채널은 수몰되기 전 물이 흐르던 자리이다. 당연히 다른 곳보다 수분의 공급이 원활해서 수목이 많이 자랄 여건이 된다. 수몰되고 나면 특별히 브러시와 스텝프들이 많이 존재하게 된다.





작은 채널 주변에 무성한 나무들과 부러지들을 보여준다.



용담댐의 수몰 마을 사이를 흐르던 큰 도랑과 주변 집터의 잔해들.

더욱이 물의 흐름은 항상 토양의 침식을 가져 오는데 딱딱한 하드바텀을 만나면 물은 방향을 급격하게 바꾸게 마련이다. 이런 현상에 의해서 채널이 굽어진 채널 밴드(Channel Bends)를 형성한다. 거꾸로 말하면 채널을 추적하다가 급하게 굽어진 곳을 발견한다면 하드바텀일 가능성이 크고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복잡한 지형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 특징적으로 급하게 방향을 바꾼 물길은 소용돌이를 일으켜 바닥을 더욱 깊게 침식하게 되고 속도가 변하므로 주변에 험프나 릿지들을 형성한다. 아니면 인공적인 제방들이 대부분 이곳에 건설이 되게 마련이다.

미답의 스트러처 ; 채널, 채널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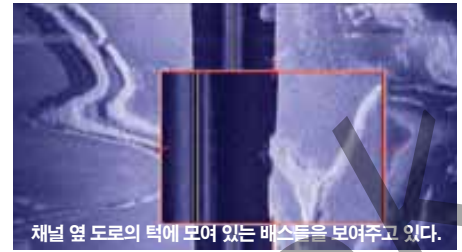
그런데 지난 호에서 소개한 곳부리 지형의 경우와 달리 채널과 채널 밴드 자리는 어떤 배스관련 서적이거나 영상에서나 반드시 언급되는 장소이긴 하지만, 실제로 공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갈수기에 드러난 일부 지역을 공략할 뿐, 채널을 추적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밴드 지역은 특히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와 최신의 어탐 기술에 힘입어서 공략 가능한 지역이 되었다. 아무튼 채널과 채널 밴드 지역은 비교적 손을 덜 탄 미답의 스트러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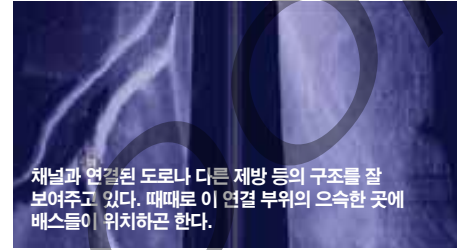


마찬가지이므로 그만큼 뒤따르는 보상도 클 것이다.

필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채널과 채널 밴드 지역이 낚시의 우선 순위에서는 한참 뒤에 놓여 있곤 했다. 그것은 쉽게 피딩 에어리어만 순회하는 낚시를 하더라도 많은 배스들을 낚을 수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낚시를 하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시기에 혹시나 해서 탐색을 하게 된 채널과 채널 밴드 지역에서 실마리를 찾고부터는 새롭게 주목하고 탐사와 함께 낚시도 병행하게 되었다. 다음의 그림들이 필자를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든 몇 장의 좋은 사진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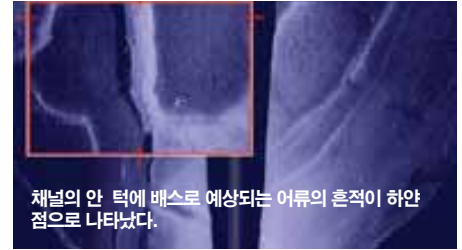
채널 옆 도로의 턱에 모여 있는 배스들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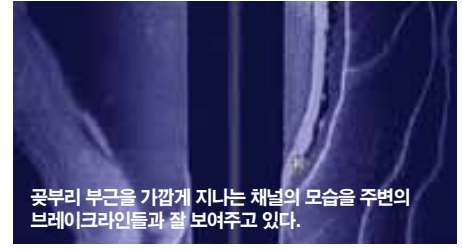
채널과 연결된 도로나 다른 제방 등의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때때로 이 연결 부위의 은숙한 곳에 배스들이 위치하곤 한다.



연안을 따라 형성된 잘 정비된 채널을 보여준다. 주변에 커다란 바위들도 보인다.



채널의 안 턱에 배스로 예상되는 어류의 흔적이 하얀 점으로 나타났다.



곳부리 부근을 가깝게 지나는 채널의 모습을 주변의 브레이크라인들과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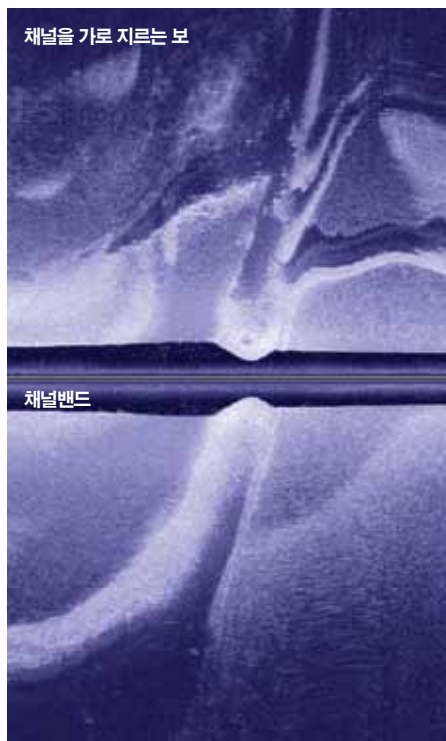
그러면 지도상의 채널 밴드 부분이 어탐상에 찍힌 화면과 실제로 물 밖으로 드러난 모습은 어떤지 서로 비교해보기로 한다.

아래의 그림은 장성댐 상류의 로드 베드와 2개의 다리를 지나는 채널들이 합쳐지는 채널 합수부와 그곳에서 급하게 방향을 바꾸는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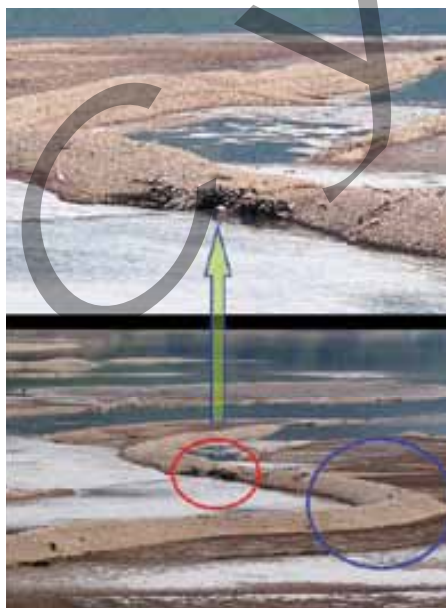
스트러처 structure 호소나 물의 밑바닥 지형의 변화와 상관없이 물의 흐름이 바뀌는 수심의 변화를 말하며, 물밑에 가라 은 점, 자갈, 펄, 바위, 철벽, 바위, 물속의 물결, 물에 잠긴 나무 등 비드 정형지물의 형태나 그 부의 물속에서 형태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 채널 channel 인공호수를 만들기 전에 강 또는 수로가 흘렀던 자리(물길). 생수어린 sanctuary 물고기가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물속의 장소. 웨트우 shallow 수심이 얕은 곳. 브러시 brush 덩굴, 갈대, 미개척지. 배스 낚시에서 비러시는 좋은 포인트 중의 하나이다. 스텝 stump (나무의) 그루터기. (식물 · 야채 등의 잎을 따낸) 밑동 줄기, 꼭지. 하드바텀 hard bottom 지갈반 혹은 바위 지역. 채널 밴드 Channel Bends 굽어진 지역

지역과 남창계곡의 메인 채널을 막는 제방 끝 부분인 B지역이다. 아래는 어탐의 사이드 영상으로 급격한 채널 밴드와 채널을 가로지르는 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주변에 몇 개의 농수로들이 연결되어있는



것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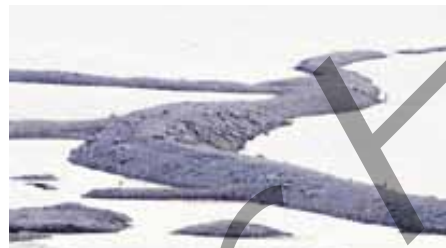
지난 여름 심한 갈수기 때 이곳이 물 밖으로 드러났는데, 아래 사진은 그때 찍은 것이다. 보 위로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알 수 있고,



확대 그림에 그곳이 큰 돌들로 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이곳은 빅배스들이 즐겨 은거하는 장소이다.



아래 사진은 위의 국토지리원 발간 지도 중 B지역의 제방 끝 부분을 촬영한 것이다. 다시 이곳의 채널 밴드 부분을 확대해보면 주변보다 훨씬 큰 돌들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침식이 덜



되어 부분적으로 주변부보다 높은 험프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또 다른 예로 아래 지도의 A지역을 실제 탐사한 결과를 이용해서 3차원 모델링한 그림과 비교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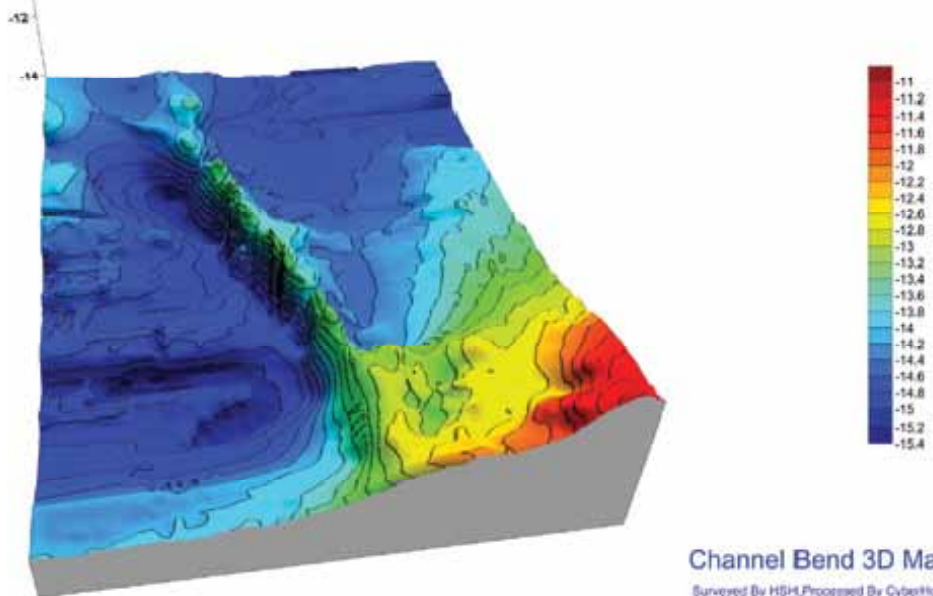
이렇듯 채널은 주변에 많은 스트러처와 커버를 내포하고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계곡형의 댐과 저수지의 경우, 지류권의 채널을 살펴 보면 곳부리와 채널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그 예를 아래의 사진이 잘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은 안동의 한 장소로 물이 빠진 갈수기에 촬영한 것이다. 곳부리와 채널이 부딪치는 장소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



장소가 유독 바위 등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하드바텀임을 알 수 있다.

이번 호에는 채널과 채널 밴드, 그리고 주변의 커버와 스트러처의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채널과 곳부리의 하드바텀 간의 관련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이제 배스낚시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개의 스트러처인 곳부리와 채널을 분석해 봤다. 이들 스트러처만 잘 이해하고 분석해서 공략해도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험프의 형성과 탐색, 공략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NAJU DADO DAM



스트럭처 피싱

빅배스를 만나기 위한 브레이크라인 지형 분석

BREAKING

이번 호에는 스트럭처 피싱을 위한 물속 지형 분석의 1차 마감으로 '브레이크라인' 지형을 다루고자 한다. 브레이크라인 지형은 외관 상 잘 들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자칫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곳부리나 험프 등의 지형에 비하면 외관상 특이한 점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특정 지역을 순찰하듯 오가는 대물 배스들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어느 지형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 좋은 배스들을 배출해 내는 스트럭처라고 말하고 싶다.



글 | 원동성 배스낚시 전문가, <http://blog.naver.com/sow2004/40104055471>
배스낚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배스낚시 연구가. GPS 등 첨단장비와 오랜 시간 배스낚시를 통해 습득한 경험을 녹여 국내 최초로 물 속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도출해내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사육' 이란 아이디로 유명하다.

1.브레이크라인 지형의 특징

브레이크라인 지형의 특징은 일정한 높이의 복잡한 등고선들로 이루어진다. 이런 지형들의 가장 단순한 예가 계단이다. 그리고 경사지에 웅기종기 밀집된 집터자리의 축대들이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된다. 산간 경사지의 계단식 논, 밭 자리의 독도 좋은 예가 된다. 그리고 수물 저수지의 제방도 뚜렷한 형태를 띤 브레이크라인의 지형을 이룬다.

그러나 통상적인 개념의 이러한 브레이크라인 지형에 필자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주변의 지형과 확연히 구별되는 스트럭처들을 포함하고 싶다. 이것은 우리나라 필드의 데이터들을 수집하면서 독특한 여러 사례 들을 발견하고 분석하면서 이들을 분류하기에 브레이크라인이라는 개념이 무척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필드에서 낚시를 할 때 브레이크라인이라고 하는 스트럭처의 기하학적 특성에서 오는 공통적인 요소들로 인해 공략 방법도 어느 정도는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사례를 위주로 이들이 주변 지형과 어떻게 확연히 구별되는가, 그리고 이들 스트럭처 주변에서의 공략은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2.브레이크라인 지형의 사례

I 집터자리

다음의 사진은 전통적인 집터에 의해서 생긴 브레이크라인으로 세월이 흘러 흙들은 모두 유실되고 바위로 된 흔적만이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위의 사진들에 있는 집터들은 대규모로 존재하는 대표적인 장소들이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의 집터란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다음의 사진(사진5)에 있는 집터는 아주 작은 규모이지만 주변 전체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곳은 산란터로서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므로 이 작은 집터를 차지하는 녀석은 그만큼 힘이 있는 녀석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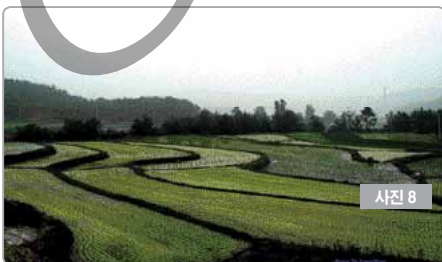


I 산간 경사지의 논, 밭둑

논둑은 수몰된 뒤에 급격하게 형상이 유실된다. 이것은 논농사의 특성상 특별한 축조 양식이 없이 흙으로 낮게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밭둑은 다르다. 경사지의 수분이 잘 배출되는 지형에 주변의 돌을 이용해 쌓기도 하고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밭둑에 나무들을 심기도 하기 때문에 수몰된 뒤에 오랫동안 그 모습을 유지하며 브러시 지역을 형성해서 산란기에 아주 좋은 배스들의 보급자리를 형성한다.



앞의 두 사진(사진 6, 7)은 경사지의 밭과 과수원 자리로 계단형식의 지형을 따라서 수몰나무들이 들어나 있는 아주 훌륭한 봄철의 대물 산란터이다. 아래의 사진(사진 8)은 이에 반해서 같은 경사지에 있는 다락논이다. 이런 지형이 수몰되면 빠른 속도로 토사가 유실되어 좋은 포인트로서의 수명이 빨리 끝난다고 봐야 한다.



I 수몰도로

의외로 우리나라의 필드에 많이 존재하는 형태이다. 대부분 유실되어 그 모습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많이 남아 있고, 남아 있는 부분일수록 분명히 주변과 구별되는 뚜렷한 기하학적 특성을 보여준다. 도로는 건설될 때 주변 지형보다 높게 건설하므로 같은 등고선 상에서 보면 돌출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맛있는 지형에서 굽부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성상 양 사이드가 급격하게 꺾이는 구조를 띤 훌륭한 스트러처이다. 혹시 연안에서 물속으로 연결된 예전 로드베드를 가진 골짜기라면 봄철에 꼭 체크해야 되는 장소이다.



다음 사진(사진 11)은 직벽 옆으로 예전의 도로 흔적이 보인다. 직벽이라는 수직 구조물을 황으로 가로지르는 긴 브레이크라인이 비슷한 등고선 상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많은 부분이 흔적만 있고 유실이 심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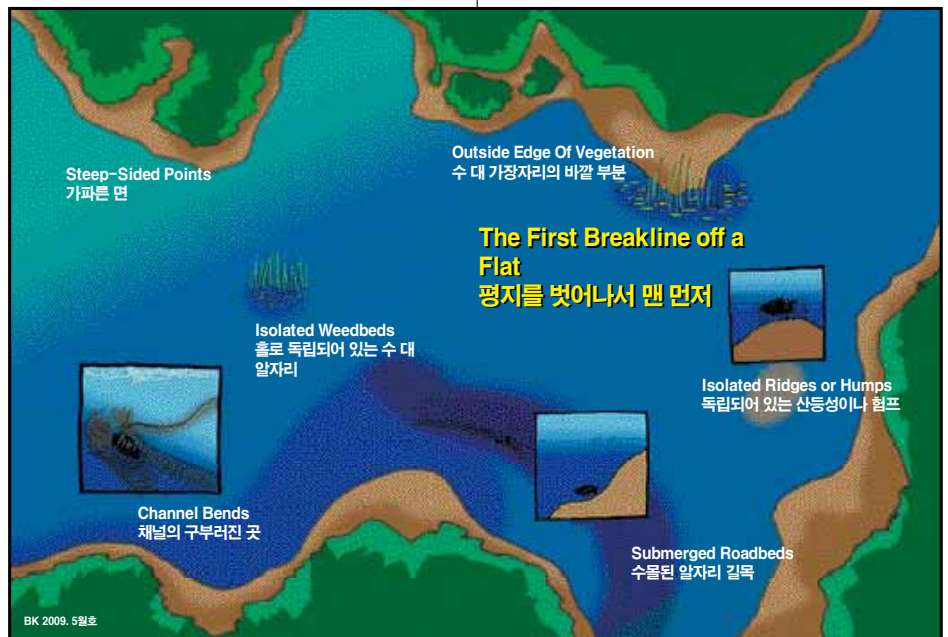
대부분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구간이 있는 것은 아직도 뚜렷한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좋은 오버행 형성을 하는 아주 좋은 스트러처라는 것이다.

다음의 사진(사진 12)은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탄약창이라는 촌로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이 구조물까지 철로가 다녔으며 그 기반이 되는 콘크리트 노반이 드문드문 남아 있어서 오버행을 형성하고 있다. 이 장소는 수몰도로와 인공 구조물이 함께 존재하는 아주 좋은 스트러처라고 말할 수 있겠다.



I 인공구조물, 건물 잔해, 석축

이런 곳은 커버와 스트러처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완벽한 곳이다. 대표적으로 수몰교량, 수몰 관공서와 학교, 수몰 제방, 수몰 수리시설 등이 있다. 이들은 배스들이 머물만한 모든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반면



스트러처 structure 호소나 물의 밑바닥 지형의 변화와 생각세 또는 수심의 변화를 말하며, 물밑에 가라 은 점, 자갈, 질벽, 바위, 흙, 모래, 물에 잠긴 나무 등 바다 지형지물의 형태나 그 부의 물속에서 형태적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것. 딱 이 지거나 볼록 솟아오른 수중 지형의 변화. 배이트피시 baitfish 어식성 어종의 먹이가 되는 작은 물고기. 배스는 작은 물고기는 물론이고 큰 물고기는 물론까지 잡아먹는다. 특히 좋아하는 먹이는 정거미와 같은 새우류이다. 하드버텀 hard bottom 저갈밭 혹은 바닥. channel 인공호수를 만들기 전에 강 또는 수로가 흘렀던 자리(물길). 브레이크 라인 break line 완만한 수심과 같은 수심이 만드는 경계선. 성질이 다른 장애물 또는 바닥 구조물이 만나는 지점.



사진 13

완벽한 은신처도 제공하기 때문에 배스들의 상태에 적절한 공략법을 익히지 않으면 쉽사리 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징도 있는 곳이다.

다음 사진(사진 14, 15)은 장성의 수몰된 북상 초등학교의 잔해이다. 멀리서 보면 아주 미미한 흔적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아주 대단한 흔적을 알 수 있다. 학교 전체는 일정한 높이가 되도록 낮은 곳을 석축을 쌓고 주변을 둘러서 커다란 나무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잘라내고 남은 나무의 밀동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리고 교사는 전체를 벽돌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만들었고, 남은 잔해도 모두 벽돌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운동장 남쪽을 지나던 도로도 양옆에 나무 밀동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뚜렷한 옛지를 유지해서 좋은 브레이크라인을 형성 하고 있다. 항상은 아니지만



사진 14



사진 15

때때로 적절한 수위만 맞으면 큰 배스들을 마릿수로 배출해 내곤 한다.

다음 사진(사진 16)은 댐에서 상수원이나 발전용 용수를 취수하기 위한 설비를 연안에 건설하고 용수를 깊은 곳에서 이곳까지 끌어오기 위해서 건설한 인공 도수로의 예이다. 이런 인공 도수로는 저수지의 경우 수백



사진 16

미터에서 대형 댐의 수 킬로미터까지 정말 대규모의 스트러처를 형성한다. 물론 이런 장소는 법규상 근처에 접근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댐 안에 먼저 축조된 댐이 통째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오래 전 건설된 댐의 용량이 적어서 새로 댐을 축조하는 경우, 기존의 댐은



사진 17



사진 18

그대로 잠겨 있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아마도 운암호와 진양호가 그런 사례 일 것이다. 댐축조 이래 최대의 기쁨으로 들어난 운암의 구 댐 모습을 감상하기 바란다.

위의 사진(사진 17, 18)들은 대부분 수몰되어 있는 스트러처들로 연중 특별한 갈수기가 아니면 잘 들어나지 않는 곳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수몰지형 말고도 항상 드러나 있는 곳들로 아주 좋은 브레이크라인을 형성하는 장소들이 있다. 다음의 사진(사진 19)과 같은 곳들이다.



사진 19

Ⅰ 준설에 의한 브레이크라인 형성

국내의 필드 중에는 필드 전체에 걸친 대규모 준설에 의해 원래의 모습은 거의 상실한 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 신갈지 같은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분에 걸친 대규모 골재 채취로 기존의 지형에 더해서 신규의 복잡한 물속 스트러처가 합쳐진 장성과 같은 두 개의 아주 상반된 사례가 존재한다. 이렇게 대규모의 인공적인 공사로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오프쇼어에 스트러처가 많은 필드의 특성은 배스들이 연안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연안과 이들 스트러처 사이를 상당히 빠르게 이동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연안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오프쇼어 지점까지의 등고선 브레이크라인을 주의 깊게 추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래 그림(사진 20)은 지난 겨울 만수위의 신갈지를 탐사해서 만든 신갈지의 수중 지형도이다. 신갈지는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최상류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역에 걸쳐서 광범위한 준설이 시행된 결과 동쪽 연안은 아주 뚜렷한 브레이크라인이 호수 전체에 걸쳐서 형성되어 있고 그 중 군데군데에 딱딱한 암반 지형은 험프나 작은 릿지 형태를 이루고 있다. 특이한 것은 탐사 과정에서 함께 수집된 바닥 지질의 특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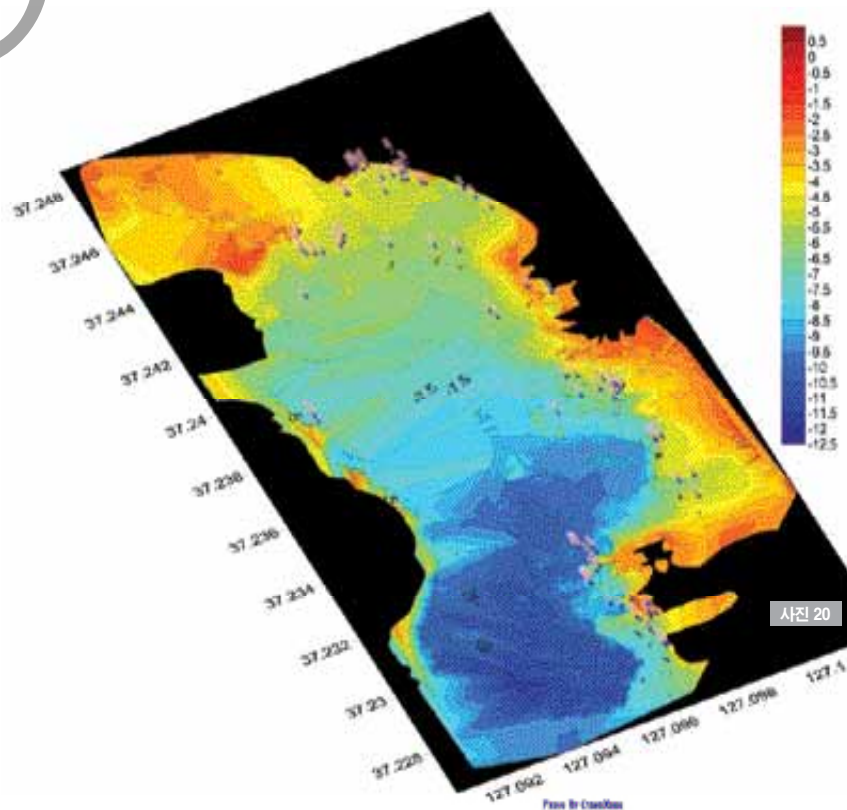


사진 20

분석해본 결과, 버드나무숲 아래의 하류지역은 전체가 매우 딱딱한 암반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위쪽은 아래보다는 무른 지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하류의 본류 가운데에도 매우 좋은 하드바텀으로 이뤄진 스트러처들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림의 옆에 표시된 만수위 기준 수심으로는 대부분 의미가 없겠지만, 심한 감수로 인한 연안 스트러처의 가치가 상실되는 시기에는 한번쯤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수초, 연밭, 갈대 브레이크라인

평지형 저수지의 경우는 물속에 마땅한 기하학적 변화가 크게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 그러나 미묘한 바닥 지질의 차이와 함께 기하학적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생 식물들의 성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문이 오르면 이러한 물속의 미묘한 변화는 물위로 커다란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 즉, 수초의 유무에 의해서 발생하는 브레이크라인이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만경지나 청호지와 같이 연밭이 많은 지역은 이들 연밭이 밀생하는 골창으로 깊숙이 들어온 브레이크라인 지역은 아주 중요하다. 특히 겨울에는 많은 배스들이 스콜링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봄에는 대물 배스들이 자주 출몰하는 장소이기도 하므로 이들 지역을 주의 깊게 공략해야 한다.



3. 브레이크라인 지형 공략법

위에 예로든 많은 사례 들을 보면 약간은 무리한 분류가 눈에 띈 것이다. “과연 이런 것들을 스트러처의 변화에 의거한 브레이크라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고 말이다. 그러나 지금껏 여러 배스낚시 관련 문헌이나 잡지 등을 통해 습득한 지식에 근거하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아기자기한 필드 규모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을 그냥 특정 지점에 존재하는 커버나 포인트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이들을 스트러처로 간주해도 되겠다는 생각은, 이런 지점을 안다고 해도 스트러처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낚시 여건인 계절, 수위, 수온, 시간대 등의 조건을 대입하고 공략해야 좋은 조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무작정 공략해서는 곤란하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들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선택해서 공략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현재의 수심에서 해당 스트러처가 존재하는 수위는 얼마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계절적으로 너무 깊거나 너무 얇은 곳은 곤란하다.

둘째, 계절적으로 수온에 극히 예민한 봄철의 경우 연안 가까운 곳에서 안전한 산란과 영양보충에 아주 유리한 곳이 있는가를 배스는 생각할 것이다. 이런 계절에는 연안 가까운 곳에 연결된 수물 로드베드와 밭자리, 그리고 집터 등이 아주 좋은 장소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런 장소만이 산란기 배스들이 모이는 곳이 아님을 부연해두고자 한다. 연안 가까운 쉼로우 지역의 자갈 험프 지역, 버드나무 숲 지역들도 아주 훌륭한 장소가 된다는 점이다.

셋째, 수위가 내림 수위인지 오름 수위인지, 그리고 그 속도는 어떤지를 알아야 한다. 이런 수위 변동에 의해서 아주 짧은 1주일이라는 시간 사이에서도 채널 주변의 수물 교량 주위에 엄청난 배스들이 몰려들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넷째, 수온의 변화를 살펴야 한다. 특히 수온이 급감하고 가을 서리가 내리는 시점에서 턴오버와 연관되면 수심에 맞는 이러한 스트러처 주변에 피딩을 위한 배스들이 드나든다는 점이다. 이런 시기에 턴오버는 상당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깊은 물로 진행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즉, 항상 특정한 장소의 스트러처가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다섯째, 낚시하는 시간대가 무척 중요하다. 이것은 계절별로 시간대에 따라서 수온의 변화와 그에 따른 배이트피시들의 움직임과 그들이 움직이는 수위, 일사량, 그림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피딩 시간에는 대부분 얇은 곳을 의식해서 오버행에서 나와 스트러처 위로 과감히 나서서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라인 선상에 서스펜드하면서 먹이를 사냥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매우 공격적인 루어로 대물을 사냥할 수 있는 시간대가 된다. 그러나 피딩 시간이 지난 경우 오버행의 그림자 속으로 숨은 배스들은 좀처럼 루어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루어의 리액션과 폴링 속도의 변화 등으로 배스를 공략해야 한다. 물론 정교하게 공략해야 함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낚시하는 방향을 스트러처에 맞게 해야 한다. 브레이크라인 지형은 명칭대로 라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많은 앵글러들은 익숙한 점의 공략법을 선호하지만 스트러처의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은 엉뚱한 방향에서의 공략은 루어가 배스에게 노출될 기회를 상실해서 배스의 입질을 유도해내는데 실패하게 된다. 이 점이 노련한 배스 앵글러와 그렇지 못한 앵글러들 사이에 많은 조과 차이가 나는 원인이기도 하다. 수물 교량과 도로가 이런 방향성이 아주 중요한 스트러처들 중 하나이다.

일곱째, 위에 든 여섯가지의 고려사항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배스의 이동경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 연재한 여러 가지 스트러처 피싱의 요소들을 종합해서 배스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그 경로 상에 유효한 스트러처의 여부를 고려한 뒤에 공략 지점을 선택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Be Creative!”

필드 상황은 바뀌게 마련이고 배스의 상태도 일정한 게 아니다. 항상 유연한 생각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자기만의 공략법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배스도 학습을 하기 때문이다.

스트러처 피싱에 관련된 연재를 1차로 마감 하면서, 이런 좋은 스트러처를 만나서 낚시할 때는 항상 사람들과 자연에 경외심을 가지시길 기대해본다. 글을 연재하면서 아쉽고도 어려웠던 부분은 글의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일이었다. 자료는 많고 아주 심도 있는 전문적인 내용도 많은데 잡지의 독자층에 맞추는 작업이 쉽지는 않다. 그리고 별도의 이해를 위한 삽화나 도표 등도 동원해야 이해가 쉬운데 그럴 만한 시간과 인력도 모자라서 아쉬운 점이 하나둘이 아니다. 그리고 필드의 사진은 적절한 크기가 되어야 이해가 쉬운데 잡지의 편집상 어려운 점도 많았다. 이제 계속할 연재는 이들 스트러처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실제적인 공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보고자 한다.

이제 필자가 생각하기에 우리 필드 중에서 자연이 만든 가장 멋진 브레이크라인 지형이라고 생각되는 운암담의 점등섬 앞 지형 사진(사진 23)을 선물하면서 본 연재를 마감한다.



